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3호> 2019년 2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올해 4월부터 일정의 전문성, 기능을 지닌 외국인 인재에 대해 취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재류 자격이 창설됩니다. 중소기업 등 인력 부족이 심각화됨에 따라 외국인 인재의 원활한 채용 촉진은 물론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오이타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1만 2천명으로 그 중 1/3이 유학생입니다. 오이타현은 유학생과 지역과의 교류 실적과 노하우를 살려 다문화 공생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오이타현 소식>

티웨이 항공 오이타-부산, 무안 노선 취항



오이타-서울(인천) 노선을 운행 중인 '티웨이 항공'이 2018년 12월 22일부터 새롭게 부산과 무안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이로써 오이타현은 수도 서울과 제 2의 도시 부산, 남부의 지방도시 무안까지 한국의 세 도시와 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LCC라서 가격도 저렴하며, 약 1시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어 기분 전환과 에너지 충전으로도 딱입니다.

현재 부산 및 광주 시내에서도 취항 노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부산 케이블 TV방송과 광주 영화관 광고를 통해 오이타의 정보를 발신해 나갑니다.

공기도 좋은 온천현 오이타에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 겨울에도 따뜻한 오이타에 놀러오세요!

【교통정책과】



<히타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나카츠시에 이어 이번 호는 히타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2019년 텐료 히타 히나마츠리>

에도 막부의 직할지로 규슈 제일의 번영을 이뤘던 텐료 히타.

상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초닌 문화(町人文化)가 꽃을 피운 히타의 옛 저택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사들여온 호화찬란한 히나 인형과 장식품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히나마츠리 기간 중에는 마메다마치와 쿠마마치의 자료관 등에서 히나 인형 및 히나 장식품을 일제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옛 성하 마을의 거리의 운치를 느끼며 느긋하게 히나 마츠리를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개최 기간 : 2월 15일(금)~3월 31일(일) / 개최 장소 : 마메다마치, 쿠마마치의 자료관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3호> 2019년 2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오이타 공항

<오이타 공항 시설편>



여행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공항에서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항 시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이타 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청사로 나뉘며,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시설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입국) 로비에서 온천현 오이타의 로고 마크인 오케짱이 여행객을 맞이해줍니다. 목욕바구니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오케짱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서 여행의 설렘을 기념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착 로비 한켠에는 무료 족욕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천현답게 온천수는 매일 베프에서부터 트럭으로 운반해오며, 비행과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에도 좋습니다. 옥상 전망대로 나가면 시원하게 뽀은 활주로를 따라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벤치와 망원경도 있어 활주로 너머 펼쳐지는 바다까지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며 잠시 바람을 쐬기에도 최적인 장소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선 청사 안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편의점,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오이타의 향토요리인 토리텐과 당고지루 등을 맛 볼 수 있으며, 기념품 샵에서는 오이타를 대표하는 과자와 술, 특산품인 히타 온타야키 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줄 여행 선물을 사야하는 분들은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연말부터 새롭게 부산과 무안 노선이 취항되며, 국제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1월부터 공항에서 와이파이 대역 서비스를 시작해 미처 한국에서 준비해오지 못한 경우에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증축 공사 중인 국제선 청사도 3월 중순이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됩니다. 대합실이 넓어지고 그동안 부족했던 휴식 공간이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개선되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항공권 운임에는 공항 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어있으니 사전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파악해두고 이용해보며 자칫 따분해지기 쉬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이타 공항 교통편>



오이타 공항에서 오이타, 베프 및 유후인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항 리무진 버스 에어라이너를 타야합니다. 도착 로비와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티켓 발권기에서 목적지를 확인한 후 티켓을 구매하며, 구매한 티켓은 버스를 탑승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 운전 기사님께 건네드립니다. 티켓은 해외 발행 카드로도 구매 가능하며, 왕복으로 이용하는 경우 2장 묶음과 4장 묶음으로 구매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이타, 베프 기준 1장 1550엔, 4장 묶음 4100엔) 에어라이너 중에서는 와이파이 가능한 버스와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도 있습니다. 오이타와 베프, 유후인까지는 공항에서 약 1시간정도 소요되며, 버스 시간표와 정류장, 실시간 운행 정보는 오이타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이타 PR 동영상

부산 케이블 TV 방송에서 제작한 오이타 PR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유튜브 '일본 오이타에 가다' 영상은 URL과 QR코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오이타에 가다' 30초 영상>

www.youtube.com/watch?v=NXWb5boWTjk

<'일본 오이타에 가다' 본편 영상 (26분)>

www.youtube.com/watch?v=IA0ZqTFj4cw&t=15s



◀ 30초 영상



◀ 본편 영상